


시온 주보

제2328호 2021년 2월 21일(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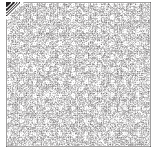
사순 제1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91(90), 15, 16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
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제1독서 | 창세 9, 8-15

화답송 | 시편 25(24), 4-5, 7, 6과 7, 8-9(◎ 10 참조)

◎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
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
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
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 1베드 3, 18-22

복음환호송 | 마태 4, 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으로 산다. ◎

복음 | 마르 1, 12-15

영성체송 | 마태 4, 4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기억 그리고 희망

기억이란 종종 상대적입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겪은 일도 각자에게 다르게 기억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었던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으로 멈춰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도 있습니다. 2020년의 어두웠던 기억을 뒤로한 채, 우리는 아직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 2021년을 살아갑니다. 이 시련의 긴 터널을 지나며 주저앉아 버리고 싶기도 했지만,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한 여정인 사순 시기를 열면서, 어머니이신 교회는 기억과 희망에 관하여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제1독서(창세 9,8-15)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며 다시는 홍수로 인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창세 9,15). 이 계약에 관한 희망의 징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창세 9,13).

제2독서(1베드로 3,18-22)에 따르면, 베드로 1서의 저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건의 심오한 의미를 풀어줍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여덟 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1베드로 3,20-21)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맺으셨던 계약을 기억하

시고 무지개를 희망의 징표로 삼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당신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희망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오늘 복음(마르 1,12-15)에서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 일을 보내신 이야기가 간결하게 묘사됩니다. 광야에서의 사십 일 동안 그분께서는 사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유혹을 받으셨지만, 결코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음을 다른 복음서(마태 4,1-11; 루카 4,1-13)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나약함·이기심 때문에 고난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기억이란 종종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기억입니다. 비록 고통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했던 일상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희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하기에 과거의 기억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삶의 원천이 됩니다. 사순 시기 동안 기억과 희망으로 부활의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산페드로 데 로사도, 스페인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마르 1,12)

아침 해를 온몸으로 받으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척박한 광야로 가시는 길과 순례자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 모두 외롭고 힘든 고난의 여정이지만, 광야에서 인류 구원의 답을 얻었던 예수님처럼 순례자는 하느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윤순 젤마나 | 가톨릭사진가회



| 길을 걷는다는 것은...

몇 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K2의 베이스캠프
프까지 가는 트레킹을 했습니다. 워낙 악명 높은 산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상상 속 태양빛에 빛나는 멋들어진 하얀 빙하가 아니
라 자갈이 빙하를 뒤덮은 너털지대에서 길을 만들어 가며
헤쳐 올랐습니다. 한여름이었지만 얼음 위에서 자는 일은
'눈물이 절끔' 나는 고통의 밤을 겪게 하였고 발바닥은 자
갈밭처럼 너털너털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빨리 올라갔다
내려갈 생각만 하며 바닥을 보고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러기를 며칠, 어느덧 저 멀리 K2가 보였습니다. 피라미드
처럼 우뚝 솟은 거산은 수많은 등산가의 무릎을 꿇게 했던
위압감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내일이면 저 산 바로 밑에
다다를 수 있다는 설렘이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해주
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부터 크레바스가 입을 짹짹
벌리고 있는 거친 빙하지대를 거슬러 올라 마침내 K2 바
로 밑 베이스캠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눈앞에 K2를 두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그 산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은 산 바로 밑에 가니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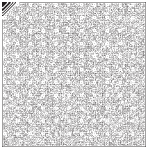
“이곳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왜 산이 보이지 않는
거야!” “이 순간을 놓치면 언제 다시?” 하는 초조함이 저
를 내몰았나 봅니다. 허탈감이 나를 둘러싸고 내 어깨는
축 늘어져 있을 때 바람결에 들리는 목소리.

“별남! 뒤를 돌아봐, 네가 걸어온 저 길을 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빙하지대를 정녕 제 발로 걸었
습니까? 무섭게 입을 벌리고 있는 공포의 크레바스들을
제가 직접 건넜나요? 저렇게 황량한 무인지대를 제가 통
과했다고요?



유별남 레오폴도 | 사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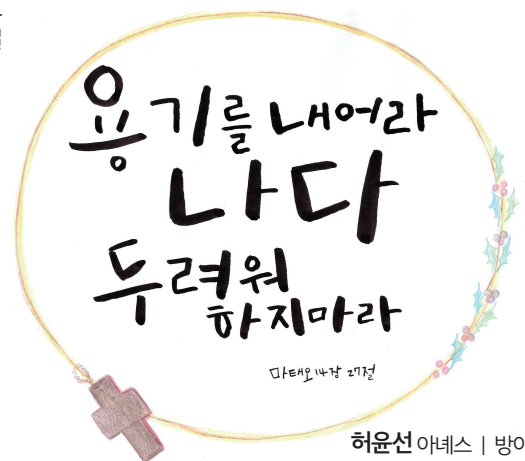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너무 추워 눈물을 흘릴
때 올려다본 하늘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가 있
었는지. 달빛에 영롱하게 빛나던 밤의 우윳빛 빙하가 얼마
나 매혹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길을 걸어왔으
며 누가 항상 나와 같이 그 길을 걸었는지!

걸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왜 힘들다고 멈추려 하고
지루하다고 다른 길을 찾아 헤매기를 반복했을까요? 내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왜 마냥 힘들다고 했
을까요? K2 밑에서 주님께서 주신 내가 걸었던 삶의 길을
돌아봤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는 이는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이 곧 저
의 길이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

큰
나를
성경
이끄는
성경
구절



다윗왕 14장 27절

허윤선 아녜스 | 방이동성당

유학생할 적응하기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선포와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선정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희년을 지내는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두 분의 영성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세 소년은 1836년 12월 2일 장상에 대한 순명 서약을 한 다음날 출발하여 6개월을 걸어서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한겨울 가장 추운 시기에

압록강을 걸어 국경을 넘었고, 무더운 여름을 향해 갈 무렵 6월 7일에 열대기후인 마카오에 도착한 것입니다. 세 소년은 첫 시작부터 전 세계의 기후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후에 김대건에게는 변문과 훈춘, 서해바다를 건너는 용덕(勇德) 은총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신부적인 모방 신부는 조선 신학생들을 부탁하며 추천서를 보냈습니다. “조선 소년 두 명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기회가 없을까 걱정이 되어 비록 저하고 4~5개월 밖에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소년을 추가로 같이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그 세 번째 소년이 김대건입니다.

마카오 본부에서는 조선 신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교를 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부에 임시 학교를 세워 대기하던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인으로서 처음으로 유럽어와 서양철학과 신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건은 라틴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칼리리 신부는 교장으로 추천받아 최고 품질의 연필 3다스, 자명종, 풍금 등을 파리에 있는 신학교 신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세 소년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임시학교에서 서양식 교육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마카오는 말라리아 풍토병이 있는 지역입니다. 첫해 11월 27일 조금씩 학업과 생활에 적응할 무렵, 최방제 신학생이 위열병으로 선종하였습니다. 칼리리 교장 신부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소년의 병자성사 이야기를 전합니다.

“

세 명 중에서 믿음이 더 강했고 신심이 더 깊었고, 앞으로 이 어린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촉망되던 학생이 꽃다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 그가 라틴어 공부에서 보인 진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식사 동안 그는 성경을 알아듣게 낭독하였습니다. ... 하비에르는 나의 손을 잡고 ‘그라시아스 파트리(Gratias Patri, 신부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그의 고상을 입에 갖다 대고 ‘착한 예수, 착한 천주’(Jesus bonus! Deus bonus!)를 열심히 되풀이하였습니다. ... 우리의 성스러운 젊은이는 그의 천주님 곁으로 가기 위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

나머지 두 소년도 풍토병이라는 위협에 적응하며 낮은 언어를 계속 배워나갔습니다.

마카오 유학 생활은 적응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스승들의 초기 편지에는 김대건의 복통, 두통, 요통 등 부적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한양에서부터 라틴어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한 김대건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종의 ‘성장통’을 겪은 것입니다. 그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은 이 초기 유학 생활의 ‘부적응’을 용덕과 신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제 천주를 위해 죽게 되었으니 도리어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 빨리 때려 빨리 죽이십시오.”

어느 부부의 작은 소망

저는 작년 4월 초, 후쿠오카 교구의 '이토시마'성당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으로 약 두 달간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후 미사가 재개된 뒤에는 미사 참석 인원을 분산시켰기에 한 달간 신자들과 첫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미사 후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신부님, 저희 성당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중에 바쁘실 텐데 초면에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자매님의 밝은 목소리와 웃는 눈을 보며 ‘무슨 부탁일까?’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부님, 저의 장례 미사를 이 성당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50대 초중반에 키가 크고 깡마른 자매님의 이상한 부탁에 저는 표정이 굳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매님 뒤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분노에 찬 듯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녀들로 보이는 청년 셋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매님과 남편을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 모시고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저,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인지...” 방금 전까지 밝은 목소리였던 자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신부님... 제가 폐암 말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장례미사를 직접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초면에 이런 청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매님, 저도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자매님과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장례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말을 한 뒤, 저는 두 분에게 안수를 해주고 한 분씩 안아드렸습니다. 제가 아닌 예수님께서 분명 이렇게 안아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자매님에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성당에서 큰아들의 결혼식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당이 처음 생겼던 30여 년 전, 자매님은 이곳에서 신자였던 남편과 ‘이토시마성당 1호’로 결혼식을 올리셨답니다. 그리고 신자가 아니었던 자매님은 그 후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느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저에게 몇 번이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 화창한 가을날에 자매님은 아들의 결혼을 무사히 올렸습니다. 그 뒤 겨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께서 갑자기 찾아와 고해성사를 청하셨고, 성사 뒤에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신부님, 분명 언젠가 집사람이 떠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느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자매님의 말씀과 하느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믿는 남편의 말씀 속에서, 저는 다시금 신앙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시 미사가 중지되어 두 분을 만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두 분에게 남은 시간, 하느님의 은총 속에 따뜻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광수 베드로 신부 | 일본 선교



후원 ARS 1877-1336
또는 QR 코드 접속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마태 20,18)

사순 시기: 믿음, 희망, 사랑의 쇄신을 위한 때

파스카 여행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사순 여정 안에서, 이 회개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희망의 '생수'를 길어 올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형제자매가 되게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마태 6,1-18 참조), 단식과 기도와 자선은 우리의 회개를 가능하게 하고 드러냅니다. 가난과 극기의 길(단식), 가난한 이를 위한 관심과 사랑의 돌봄(자선), 그리고 자녀로서 하느님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기도)는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살아 있는 희망과 실질적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1. 믿음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그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촉구합니다

이번 사순 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세 대대로 전하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그 한계까지 모두 취하심으로써, 쉽지는 않지만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극기의 한 형태인 단식은 단순한 마음으로 이를 실천하는 이들이 하느님의 선물을 재발견하게 도와주고, 하느님과 비슷하게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그분 안에서 충만에 이르는 피조물인 우리의 현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단식은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순 시기는 믿음의 때입니다. 우리의 삶 안으로 하느님을 환대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때입니다(요한 14,23 참조).

2. 우리의 여정을 지속하게 해 주는 "생수"인 희망

예수님께서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셨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생수'(요한 4,10)를 주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충만하게 주실 성령,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을 선사해 주시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태롭고 불확실해 보이는 요즈음과 같은 시련의 때에 희망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 시기는 우리가 빈번히 착취해 온 당신의 피조물들을 계속해서 끈기 있게 돌보시는 하느님께로 되돌아서는 희망의 시기입니다(찬미받으소서, 32-33항, 43-44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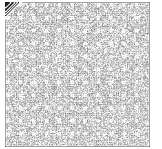
희망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묵시 21,1-6 참조) 새로운 시대의 증인됨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모든 이를 위한 관심과 연민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의 가장 고귀한 표현입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의 성장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이들이 근심에 휩싸이거나 외로워하거나 아프거나 집이 없거나 멸시당하거나 궁핍한 처지인 것에 아파합니다. 사랑은 마음의 도약입니다. 사랑은 선물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우리의 가족, 친구, 형제자매로 바라보도록 해 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함께 나누면 결코 고갈되지 않고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작든지 크든지 기쁘고 소박하게 베푸는 우리의 자선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소외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이때에,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43,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서 언제나 충실하신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당신 사랑의 현존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Francisco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2코린 7,10)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구원의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절은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은총의 시간을 말합니다. 사순 시기를 지내는 진정한 목적은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 시기에 신자들에게 기도와 자선, 금식을 강조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신자들은 이미 받은 세례를 다시 생각하고 참회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합니다.

지난해 사순 시기에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미사의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우리 모두의 삶을 혼돈으로 내몰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회개의 시간인 이 사순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고통 역시 무의미하지 않고 때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비는 "죄인에게 다가가시는 하느님의 활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죄인에게 참회하고 회개하여 믿도록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자비의 열매』 21항) 하느님께서 죄를 통해서도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잘못에 빠져 당신

에게서 떨어져 나와 헤매고 있는 길 잃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찾으시고 다가오십니다.

이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인간을 회개시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회개란 바로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다시금 용기를 내어 다가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표징은 일상의 구체적 활동으로 신앙을 증거하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을 먼저 사랑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의 형태는 더 뚜렷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은총의 사순 시기에 하느님께서 더욱더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비의 활동을 실천하여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회개로 사회 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 자비의 위대함을 접하시고는 당신의 비천함을 가장 먼저 깨달으시고(루카 1,48 참조) 당신 자신을 주님의 겸손한 종이라고 하신(루카 1,38 참조) 우리 신앙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이를 간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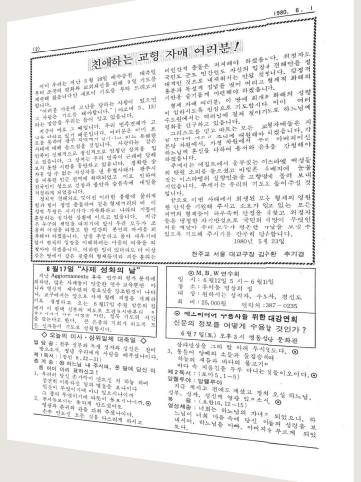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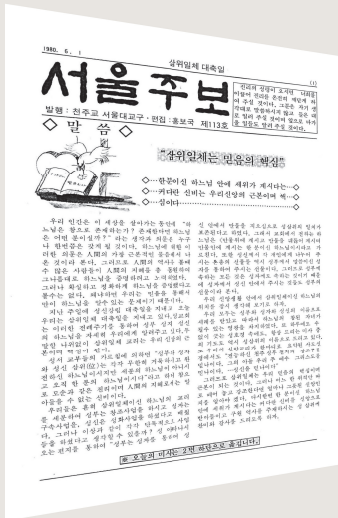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수영수경

응답하라 1978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김수환 추기경의 메시지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980년 6월 1일
삼위일체 대축일
에 김수환 추기경
은 서울주보 2면에
“친애하는 교형자
매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당시의 혼란스
럽고 모든 것이 잘
확인되지 않은 상
황에서 김수환 추
기경은 아주 빠른

시간에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김 추기경의 메시지에는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되어야 한다는 완곡하지만 강력한 권고가 담겨있습
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전국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서울 등 대도시의 대학 캠퍼스에 계엄 군인들이 진입
하였습니다. 당시 4~5월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난 5월 18일 예수승천 대축일
부터 조국의 평화와 교회쇄신을 위해 9일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새로이 기도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해야합니다.” (야고버 5, 13)
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우리 민족전체가 고
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보
도들 통하여 광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같은
민족이 신세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
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 민족이 근래에 당해
보지 못한 시련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
자를 알 수 없는 사상자를 낸 유혈사태가 광주시
를 비롯한 인근 전역에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국민이 참으로 긴장과 불안과 슬픔속에 내일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견해차로 빚어진 이러한 불행에 물리적
힘과 힘이 정면 충돌하여 같은 형제끼리의 비 이
성적 투쟁은 시시각각 가속화하고 나라의 기둥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은 누구의 책임도 따지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조
용히 이성을 되찾고 한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회
복해야 하겠습니다. 남을 추궁하고 묻어 세우기에
앞서 형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여유를 되
찾아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같은 땅에서 같은 피줄의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는

비인간적 충돌은 저지해야 하였습니다. 위정자도
국민도 군도 민간인도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만 정
대적인 것으로 내세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정적
충분과 독선적 집념을 벗어 버리고 형제적 화해의
기반을 슬기롭게 마련해야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 회개와 화해의 성령
이 임하시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미 여러
수도원에서는 여러날에 걸쳐 철야기도로 하느님께
평화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교형자매들은 지
금 단식과 기도도 주님께 애원해야 되었습니다. 각
본당 차원에서, 가정 차원에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혼신을 다하여 용서와 은총을 간절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에집트에서 웅부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의 탄원 소리를 들으셨고 바빌론 유배에서 눈물
짓는 이스라엘의 실향민들을 고향땅에 돌려 보
시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
입니다.

같은으로 이번 사태에서 희생된 모든 형제의 영원
한 안식을 기원해 주시고 소화가 알고 있는 모든
지역의 형제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고 위정자
들은 냉정한 자기반성으로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
지를 깨달아 우리 모두가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1980년 5월 23일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

가 계속되고 있었
습니다.

5월 18일 아침
부터 전국 대학의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대 앞
에 대학생들이 모
여들었습니다.

계엄군은 이들
을 거칠게 폭력적
으로 해산시켰습니
다. 이날 오후에도
광주 시내 곳곳에

서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으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
였습니다.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그 다음에도 시위는
견잡을 수 없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계
엄군의 총격 발포로 사상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
고, 광주 지역은 철저히 봉쇄되어 출입은 물론 전화
도 불통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철저한 보도 통
제도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의 비극적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언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광주 방문

에서는 불순세력과 폭도들의 불법시위라며 시민들의 피해 사실을 숨기는 일방적인 왜곡보도가 난무했습니다.

김 추기경이 광주의 사정을 알게 된 것은 당시 광주대교구장이었던 윤공희 대주교를 통해서였습니다. 1980년 5월 19일 윤 대주교는 금남로 가톨릭센터 사무실에서 계엄군에 의해 시민들이 무차별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윤 대주교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린 주교회의에서 김 추기경을 만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 김 추기경은 5월 20일 전두환 당시 보안 사령관을 찾아가서 ‘유혈사태를 중지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 추기경은 이후에도 위کم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김 추기경은 주교회의 이후 광주로 돌아간 윤 대주교에게 “부상자가 많다는 소식에 걱정이 크다. 무력진압을 막아보려 노력하겠다. 광주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라며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도 동봉하여 비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돈은 부상자들을 긴급 구호하는데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시 광주는 고립된 상태였기에 편지는 계엄사령부와 광주 상무대 군종신부를 통해 극비리에 윤공희 대주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 추기경의 이러한 의지는 광주대교구에도 전해져 1980년 5월 23일 ‘광주사태에 대한 전국 신자들에게 기도 요청’, 광주대교구 사제단이 광주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소상히 알린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등이 작성돼 퍼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비극적인 상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과 함께 기도를 요청한 메시지의 발표는 서울주보였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SNS같은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서울주보였습니다.

사순 시기

사순은 본래 '40일'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간 재를 지켰고, 엘리야 예언자도 호렙산에 갈 때 40일을 걸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신자들은 참회와 희생, 극기, 회개와 기도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 대축일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4년 2월22일 이우철 시몬 신부(69세)
- 2020년 2월25일 최현묵 마태오 신부(40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홍보위원회와 함께하는 즐거운 사순생활

사순 시기 독후감 공모전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미사 참례와 성사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영적 독서를 통해 사순 시기 동안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서명]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박도식 신부 지음

부모님이 자식에게, 자식이 자라 자녀들에게 읽히는 책들이 있다. 이런 책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다정한 친구처럼 우리 곁에 머무르며 깊은 깨달음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책은 가톨릭 교리를 쉽게 설명해 주기로 유명했던 박도식 신부의 저서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도서명] 지친 하루의 깨달음

안셀름 그린 신부 지음

다양한 관점에서 피로의 모습들을 관찰하여 피곤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증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도,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해 독자들은 피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대상

사순 시기를 즐겁게 보내고 싶은 모든 이

기간

2021년 2월 21일~3월 31일
(마감일 소인 유효)

참가방법

홍보위원회가 선정한 위의 영성 서적 2권 중 1권을 읽은 후 소감이나 묵상글을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로 작성하여 응모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commu@catholic.kr
우편 접수: [04552]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30 평화빌딩 별관 3층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즐거로운 사순생활> 담당자 앞 (접수된 원고는 반환 안 됨)
*원고 상단에 교구, 본당, 성명·세례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목 기입

심사기간 및 발표

심사: 4월 1일~14일 | 발표: 4월 15일 전
후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및 개별 통보

시상인원 및 내역

총 20명에게 시상 |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3명, 동상 5명, 입선 10명

도서명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박도식 신부 지음
'지친 하루의 깨달음', 안셀름 그린 신부 지음

도서 구입처

가톨릭출판사 (www.catholicbook.kr) 및 기타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 가능

소방사목 선교봉사자 모집

내용: 교육과정 수료 후 파견
대상: 건진받은 60세 이하의 교우
문의: 02)727-2078, 010-4799-2078 직장사목팀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회비: 1만원 / 문의: 010-6542-8642
때: 3월10일부터 매주(수)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B203호(구.계성여고)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조수민 개인전: 1 전시실
이론연구소 16기 졸업작품전: 2 전시실
임은재 개인전: 3 전시실
전시일정: 2월24일(수)~3월1일(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258차 미사(내 마음의 복날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2월2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함흥교구 흥남 본당 · 함흥 본당 /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수도자 성체 분배 직무 교육

대상: 서울대교구 성체 분배 직무 규정에 따라 신구 · 갱신 교육이 필요한 교구 내 수도자
때, 곳: 3월18일(목) 14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1만원(3월11일 마감)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접수 후 신청서 송부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임 가신 길, 임 따라 걷는 길' 신청안내

때: 3월2일(화) · 3월13일(토) · 3월16일(화) · 3월27일(토), 화요일 오후 1시부터 · 토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코스: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우포도청 터~절두 산순교성지) 도보순례
회비: 1인 7천원(간단한 간식 제공)
신청: 2월22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방역지침 준수,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2269-0413

인준단체 알림

모임

청년 피정(ICPE) / 문의: 010-7548-6664

주제: 나는 누구인가?(정체성 찾기)
때, 곳: 4월3일 10시~4일 16시, 마리스타(합정동)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7차	3월12일(금)~20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88차	4월9일(금)~17일(토)	

아씨시 수녀들과 함께하는 청년 랜선모임

주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랜선 피정	3월6일(토) 14시~18시	문의(접수): 010-5313-0241
랜선독서모임	2월27일(토) 14시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 최영민(예수회)

제주교구 성지순례 3박4일(글라렙선교수도회)

때: 매일 출발 / 회비: 32만원
내용: 성지 6곳 순례 및 미사·성사(글라렙선교수도회 신부 동반) / 문의: 010-5150-2625

가정선교회 찬양·치유·회복 피정

때, 곳: 3월22일 14시~18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회비 없음, 식수 준비
찬양: 고정민 단장과 손현희 악기팀 / 문의: 010-6281-8626, 010-5710-6510, 010-4077-3954, 02)777-1773 대표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공복감 없는 효소단식으로 면역력도 올리고 성체신심의 은혜로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 지도: 토마스모어 원장 신부
문의: 010-9916-5798 신부, 010-9363-7784 신글라라
곳: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때: 2월26일(금)~3월1일(월), 3월12일(금)~15일(월), 3월26일(금)~29일(월) / 회비: 36만원(단식 효소비 포함)

상지피정집 / 문의: 010-9401-9374

신구약 성경통독	4월9일~17일(8박9일)
렉시오디비나 (말씀 안에서 깊은 하느님 만남)	3월2일~4월20일(화) 10시~12시30분(8회) / 회비: 15만원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한라산눈꽃 피정	2월27일~3월1일
성지순례 피정	3월15일~18일, 3월21일~24일
자연순례 피정	3월5일~7일, 3월27일~29일

음악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 초급 과정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02)575-7661 가톨릭성음악 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음악치유 피정반	3월4일~17일 매주(수) 13시~17시	회비: 12만원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3월2일~16일 매주(화) 13시~17시	회비: 15만원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사반주를 위한 오르간 교육(대치 오르간아카데미)

곳: 대치2동성당 / 문의: 010-9468-7660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 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 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30~40대 청장년을 위한 신약 통독

지도: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때: 4월~12월(일) 30대(토) 40대 16시~18시 / 회비: 3개월 10만원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문의: 010-4598-6912

복음화학교 143기 온라인 유튜브 개강

때: 3월24일(수) 10시·3월26일(금) 19시
문의: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학교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정규입학 모집

기숙사 학교 /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cdcc.co.kr

2021학년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추가 모집

모집기간: 2월22일(월)~27일(토) / 문의: 033)649-7000
의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의료융합대학, 항공대학,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예술대학, 관광스포츠대학

루아 젊은이 성령 세미나(청년성령쇄신봉사회)

내용: '성령 안의 새 생활'을 위한 강의와 안수
때: 3월5일~4월23일 매주(금) 20시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2021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 문의: 02)745-8339
원서접수(추가): 3월31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노틀담실천교리 월요연수 / 문의: 010-8829-6292

내용: 교리교육, 전례기도, 성사와 성경
때, 곳: 3월22일·4월12일·4월26일·5월10일 14시~17시30분, 북촌마을(종로) / 다음카페: 실천교리연구소

베네딕도성서학교(수유리 본원) 개강

때: 3월3일(수)·5일(금)·6일(토)~6월 둘째주(12주)
곳: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주최, 전철 4호선 수유역)
시간: 14시~16시 / 문의: 010-6595-5656(소그림 선착순)

모세오경	금요일·토요일	역사서	수요일
------	---------	-----	-----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대면 수업)

내용: 마리아론 일제와 33일 봉헌기도 / 6개월
회비: 16만원 / 문의(접수): 010-9620-4820, 02)774-0448
계좌: 우리 1006-301-276411 티없으신성심 / 분납 가능

낮반	3월23일~8월31일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호
저녁반	매주(화)	19시~21시	가톨릭회 318-2호

2021년 1학기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바오로 성서모임

모든 강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입니다

문의(접수): 02)752-7894, 02)3706-3249

3월8일(월)	창세기	김 오틸리아 수녀	10시~12시 종강: 6월 셋째주
3월22일(화)	요한복서	김 아베스마리 수녀	
3월4일(목)	사도 바오로를 따라서	윤 바실리사 수녀	
3월5일(금)	예수그리스도를 따라서		

목주·반지·목걸이 교육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 내일이룸학교
 때: 2월~12월 / 대상: 15세~24세 남자(학교밖청소년)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21년 봄학기 수강신청

가톨릭전례꽃꽂이, 초세기교회발견하기, 전례음악합창지휘, ITEC아로마테라페, 반려동물아로마지도사, 유러피언꽃꽂이, 보존화가공회, 심리상담사2급, 독서심리상담사, 노인미술지도사, 복지원에서, 커피바리스타, 민화, 사진, 글쓰기, 한국예술가곡코칭클래스, 클래식기타, 편곡법, 성악, 오르간개념레슨
 곳: 성심교정(부천 역곡) / 문의: 02)2164-6587, 8

가톨릭ON(생활성서사 온라인 클래스) / 문의: 010-3092-1108

클래스 개강: 2월15일 / www.catholicon.co.kr
 클래스 오픈 기념 얼리버드 할인혜택 기간: 2월14일까지

바ible가이드(성경입문가이드)	김효준 신부
성경 본문 zoom(Zoom in) 구세사 편 1	김혜윤 수녀
늘푸른성경여정 구역 1(입문+창세기)	김영선 수녀
늘푸른성경여정 신약(예수그리스도입문)	박기석 신부
지혜여정(이사야서·다니엘서·요나서)	박형순 신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오르간	(화) 16시30분~18시30분, 18시30분~20시30분	문의: 010-7795-6409
국악기-대금·소금·단소, 생활음악악기-판플룻·통기타·우쿨렐레·오카리나·아이리시틴휘슬	(화, 수) 10시30분~12시30분, 15시~17시, 18시~20시	문의: 010-7930-2074
재즈피아노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문의: 010-7244-1312

예수회센터 영성 강좌(3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심리적 치유와 성숙을 통한 영적 여정(신설)	매주(화) 14시~16시	신선미 선생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매주(화) 14시~16시	서명원 신부
영성과 철학상담	매주(화) 19시~21시	박병준 신부 홍경자 교수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실시간 영상 강의(ZOOM)-매주(목) 14시~16시 / 동영상 녹화강의-동영상 링크 발송	권요연 신부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3월 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곳: 가톨릭회관 / 문의: 010-2226-5874, 010-7411-7163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 회비: 7만원
 대상: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3월3일부터 매주(수) 10시30분~19시40분(총6회)
 곳: 한국CLC 강익실(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5번 2월25일까지 접수 /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CLC

모집

도미니칸 평신도회 회원 모집(재속회)

대상: 전진성사를 받은 만 60세 이하의 성인 남녀
 문의: 010-9720-7015 성소 담당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2월24일(수)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인내

코메스영성상담소

영성, 그 길을 만나면 쉽고 회복이 있습니다
 대면·전화·온라인상담 모두 가능(주1회)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가족 갈등

여성 전화 상담	(월~금) / 문의: 02)990-9366
가톨릭여성심리 대면상담	문의: 02)990-9360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심층적 자기이해와 가족관계 성장	3월8일~5월10일 매주(월) 오전 10시~12시(10주)
전문심리치료	가족, 정서적문제(불안, 우울, 분노, 강박행동, 대인관계)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AMR 영상심리치유	내면아이 치유, 분노조절 외 청소년 및 성인 대상(상시)
수지메니어그램	자기 본질 찾기 및 자기인식을 위한 교육(상시)
의식성장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가치야 놀자'	개인, 가족(청소년), 소규모 팀(상시)
영어·불어성경	3월 첫째주(금·토) 개강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영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대인관계·강박) 종합심리검사

서천군립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천주교 대전교구 운영 / '치매안심병동' 운영
 신경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주일·평일 미사 및 봉성체 / 문의: 041)950-1008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우울·불안, 성격, 대인관계, 가족, 진로 / 02)2258-7720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 비대면 상담 가능
 상담비: 대학원생 5천원, 전문가 7만원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수녀회)

나와 가족이 행복해지는 심리강좌

강사: 김은희 수녀(상담심리사 1급)
 대상: 대상관계이론을 통해 사랑이 탄생되는 정서발달 단계를 공부하고 싶은 분
 때: 3월3일(수) 10시~12시30분(12주간)
 곳: 살레시오교육영성센터 상담실(주최, 전철 신봉역 7호선 4번 출구) / 문의: 02)841-0524, 010-2382-3524

유판단지 일리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교육·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과정: 3월29일~4월26일 (월) 10시~15시(5주, 5명 제한) / 문의: 02)776-7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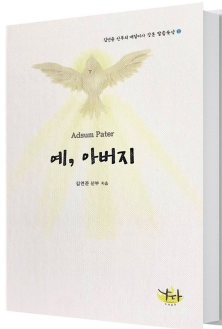
직원모집

수궁동성당 방호원(계약직) 1명 모집 / 문의: 02)2617-8183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으로 시설물 관리, 영선 가능자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통보)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에서 다운),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교적 사본
 3월13일(토)까지 방문·우편(우 08257,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275) 및 이메일(dltla@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	0505-1306-1505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본원 및 온라인	010-4241-1210 성소 담당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넷째주(토) 15시~(일) 13시	서울 분원(강릉동)	010-8353-2323
성 빈센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수시	수녀원(경기도 양주)	010-6625-0927
예수고난회	3월6일(토) 18시~7일(일) 13시	수도원(둔암동)	010-6804-4904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pnunskorea@catholic.or.kr)
예수회	3월6일(토)	한국 관구 본부	010-8498-9593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2월28일(일)	본원(삼전교)	010-3679-7198 강퍼아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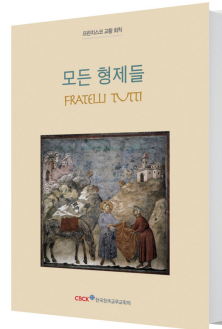


신간

예, 아버지

김연준 지음
도서출판 나다 | 255쪽 | 1만5천원
문의: 010-7581-6771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지된 후, 유튜브 방송에 뜻이 있었던 김연준 신부가 가톨릭 성모 방송국(CMBS) 채널 '재의 수요일 미사'로 첫 방송의 문을 열었다. 이 책은 광주대교구 김연준 신부의 강론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신간

모든 형제들
(Fratelli Tutti)

프란치스코 지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4쪽 | 8천원
문의: 02)460-7582

교황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류의 거짓 안전뿐 아니라 초(超)연결되어 있는 인류 공동체의 중요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말한다.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번째 회칙으로 인간의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다루는 사회 회칙이다.

YouTube

‘성바오로딸’, ‘바오로딸뮤직앤’ 유튜브 검색창에 “성바오로딸” 및 “바오로딸뮤직앤”을 입력하세요.



성바오로딸수도회는 이 시대 사람들의 언어로 소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바오로딸(youtube.com/fspkorea, 이하 유튜브 성바오로딸)>과 음악이 가진 힘으로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바오로딸뮤직앤(youtube.com/fspmusic, 이하 뮤직앤)>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성바오로딸 (youtube.com/fspkorea)

성바오로딸 채널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10분 기도 매주 1회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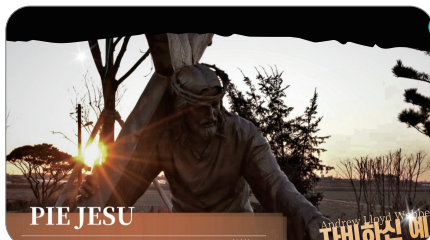
신자들이 메마른 기도 생활과 분주한 일상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는 소중한 하루 10분’을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성인열전 매주 목요일 업로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감동적인 성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성인이 나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책 읽어주는 수녀와 수사, 수녀님 기도해 주세요, 주님과 단둘이 시리즈 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창세기와 탈출기, 기도노래모음, 아이와 어른을 위한 8편의 성경동화, 가톨릭 궁금중 등 다채로운 교리교육 콘텐츠들로 교회 안의 다양한 필요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성바오로딸
유튜브 QR



바오로딸뮤직앤 (youtube.com/fspmusic)

바오로딸뮤직앤은 음악이 가진 힘으로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가톨릭음악채널입니다. 연속 듣기 서비스로 업로드하며 음악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 기쁨과 평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톨릭 성음악

클래식 기타 연주 콘텐츠 ‘기타의 기도’ 등 전례 시기에 맞추어 성가와 클래식 곡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 기도해

하느님 안에서 사는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사제, 부제, 수도자들의 성가 콘텐츠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9020 그때 그 성가

90년대의 감성을 그대로 담은 추억의 성가 다시 듣습니다.

바오로딸뮤직앤
유튜브 QR



❖ ❖ 기부 진시 ❖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누계 : 1,891,904,758원

본당 사무실에서는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에 봉헌될 기부금을 '기부 진시'라는 이름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봉헌하신 기부금은 사무실을 통해 일괄 서울대 교구로 전달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명동대성당 미사시간 (11월 30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요일	07:00, 10:00, 18:00
화~금	07:00, 10:00, 18:00, 19:00
토요일	07:00,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
일요일	7:00, 9:00(영어), 10:00, 11:00 12:00(교중) 16:00, 17:00, 18:00, 19:00(청년)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임시 조정 (12월 8일부터 적용)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사무실 폐문
토요일		
일요일	07:00~20:00	

◎ 본당 카카오톡채널 [명동대성당 소식] 개설

코로나19로 성당에 오시지 못해 본당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교우분들을 위해 카카오톡채널[채널명: 명동대성당 소식]을 개설하였습니다. 주보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당 소식을 카카오톡채널 추가로 휴대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사순 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취소

사순 시기 매주 금요일마다 대성전에서 다 함께 봉헌하던 「십자가의 길」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성전 개방시간(월~금 11:00~16:00)을 이용하시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것을 권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미사 참례 지침 안내

(※2월 21일 현재)

단 계	미사 참례 지침
1단계	1~2미터 간격을 두고 띄어 앉기
1.5단계	좌석 수의 3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400명)
2단계	좌석 수의 2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250명)
2.5단계	좌석 수의 1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120명)
3단계	비대면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제작과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주례자+스태프)만 입장

※상기 안내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본당 미사 참례 지침을 참고해 주십시오. 주보 발행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시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본당 홈페이지 하단 유튜브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미사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르는 본당의 세부 지침 (2021년 2월 15일지 발령)

2021년 2월 15일(월) 오전 0시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치에 맞추어 수정된 본당의 세부지침입니다.

· 개인 기도와 묵상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을 위해 '평일(월~금요일)에 한하여' 대성전 개방을 계속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1시 ~ 오후 4시

· 김대건 성인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2020년 11월 8일부터 개방된 지하성지는 매일 아래와 같이 개방을 계속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 상설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 고해성사 : 월요일 ☞ 없음.

화~금 ☞ 오전 11시 ~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7시

주 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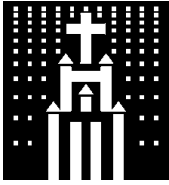
· 단체 모임이나 회합 등의 활동은 추후 공지 시까지 중단합니다.

· 예비신자 교리반은 추후 공지 시까지 대면 수업은 중단하며, 비대면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서 미사 참례인원은 교적과 상관 없이 미사당 250명으로 제한됩니다.

타 교적 신자분들은 가급적 주소지(거주지) 인근 본당에서 미사에 참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월 28일(주일) 24시까지 적용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 르 티 노) 신부
부 주 임 김한국(베 드 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보좌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 환영미사 및 약력 》

2월 21일(주일) 오전 11시 미사는 새로 부임하신
김한국(베드로) 부주임 신부님과 파비아노 레베자니
(파비아노) 신부님의 환영미사로 봉헌됩니다.

따뜻한 환영과 함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약 력

※ 김한국 (베드로) 부주임 신부 ※

2013. 2. 1. 사제 서품
2013. 2. 12. 상도동 성당 보좌신부
2016. 2. 16. 군중 신부
2019. 8. 27. 잠실7동 성당 부주임신부

※ 파비아노 레베자니 (파비아노) 신부 ※

2021. 2. 5. 사제 서품

《 지하성지 전기촛불봉헌대 》

뜻있는 교우분께서 순교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지하성지에 전기(LED)촛불봉헌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사순 시기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2020년 11월 29일~2021년
11월 27일) 동안 많은 기도 바랍니다.

◎ 김대건 신부님 서간집 필사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과 사순 시기를 맞아
신앙심 고취와 사순의 의미를 되새기시길 독려하며
'김대건 신부님 서간집 필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명동대성당 교적 신자 (※타 본당 불가)
- 기 간 : 2월 17일(수) ~ 4월 4일(주일)
- 대상도서 : <이 빈 들에 당신의 영광이>, 바오로딸
- 행사내용 :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택일하여 제출
- ① 대상 도서의 서간 중 10편 이상을 선택하여 필사
- ② 대상 도서의 서간을 정독하고 독후감 작성
- 시 상 : 기간 내 필사 또는 독후감 제출 신자 중
순위를 정하여 시상 (※시상품 추후 선정)

※대상도서는 개인별로 구매하여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 3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예비신자 환영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3월 7일(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접 내방 접수로 교리반 신청을 받으며,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화상 수업
(Zoom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강 사
금요반	오후 7:30	김주신(멜키올) 신부
토요반	오후 4:00	이 안젤라 수녀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각 반 50명씩 선착순 접수

※교리반 접수 장소 : 교육관 303호

※접수 시 준비사항 : 등록비 1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2/8-2/14).....13,950,000
- 연중 제 6 주일 헌금.....16,485,840
- 감사헌금 (2/8-2/14).....2,100,000

강 세시리아 / 이 글라라 / 이 대건안드레아
이 마리아 / 이 마리아막달레나 / 장 파비올라
조 다니엘라 / 지 헤레나 / 진 크리스티나
최 마리스텔라 / 최 안나 / 홍 마리아

◎ 사순 시기(2월 21일~3월 31일) 판공성사

※사순 제 1 주일부터 보신 고해성사는 부활 판공
성사로 간주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활
집중판공이 없사오니 3월 31일(수)까지 아래 안내된
고해성사 요일과 시간을 참고하시어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성사표는 배부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성사를 보신 후에는 교적에 성사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방 또는 유선으로 사무실에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일	고해시간	고해장소
화~금	11:00 ~ 18:00	상설고해소
토요일	11:00 ~ 19:00	
주 일	10:00 ~ 19:00	

◎ 고해성사 휴무

4월 1일(목)부터 4월 11일(주일)까지는 상설 고해
성사를 포함한 본당 고해성사가 없습니다.

◎ 2021년 1학기 늘푸른청년 주일학교 개강

올해 늘푸른청년 주일학교는 '성경', '사회교리',
'교회예술' 3개 강의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 중 1개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늘푸른청년 주일학교 수업 방식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접수 시 안내드립니다.

·개강 : 3월 20일(토) 오후 4시

·접수 : 2월 27일(토) & 3월 6일(토) 오후 4시

문화관 2층 게스트 홀 (접수비 3만원)